

Best Learner에게 듣는 학습전략 노하우 8

- 계획은 원대하게 도전은 즐겁게 마음은 건강하게 -

● ● ●
소 인 지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부생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생들 앞에서 제가 '학습전략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게 되어 쑥스럽습니다. 저는 학습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일 보람 있고 알차다고 느끼면서 제 대학생살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대학생살을 버거워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느라 학점을 망치거나 학점 때문에 아예 학업 이외의 활동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람차게 대학생살을 꾸미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발전시키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걱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선택지들이 주어지고 처음으로 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니 마치 장난감 가게에 온 아이처럼 이것저것 담아 놓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학점, 동아리, 사람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울대에 진학한 많은 학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욕심쟁이일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마음껏 놀면서도 학점과 스펙을 관리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계획을 세우자 - 4년 약도 그리기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단순하게는 동아리 활동이 너무 즐거워진다든가 연애를 시작한다든가 하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진중하게는 새로운 장래희망이 생기는 등의 변수들이 늘 솟아납니다. 그런 변수들을 만났을 때 혼돈에 빠지지 않고 다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한 장기 계획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자신의 대학생살 4년 또는 5년의 시간에 대한 계획을 추천합니다.

평범한 신입생으로서 저도 1학년 1학기는 4년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친구들이 많이 듣는 수업을 듣고 별 계획 없이 대세에 휩쓸리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 학기가 끝나고 학과 졸업요건과 복수전공 자격요건 등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무계획적으로 선택한 수업과 생각 없이 드롭(drop)한 수업들이 피 같은 대학 생활을 낭비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나만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복수전공, 교환학생, 졸업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4년 계획을 세워 시간표를 짜고 학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년 계획이 있으니 잠시 방향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고 또 변수가 있을 때에 4년 계획을 토대로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신입생들에게 4년 계획은 너무 요원한 일처럼 들릴 수 있고 고학번 학우분들은 장기계획을 짜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어차피 차차 수정해나갈 때 토대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또 조금 늦었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 하루만 딱 날을 잡고 나의 대학생활을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2. 공지를 확인하자—귀찮음과 두려움을 극복

진로 고민은 대학생활 내내 저와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친구입니다. 아마 저 이외에도 진로 고민을 하면서 스펙을 쌓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진로 고민을 극복하는 데에는 경험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경험들을 하다보면 나에게 정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또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보면 저절로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스펙들도 한 두 개씩 쌓이게 됩니다.

2.1 공지를 잘 확인하자

그런데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 쉽게 얻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독특한 경험을 하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고,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싶어도 도대체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기회들이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손가락에 떠서 눈앞까지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각 홈페이지의 공지란입니다. 멀리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서울대학교 포털사이트, 학과 홈페이지, 국제 협력센터 등의 홈페이지만 보아도 엄청난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입니다. 귀찮음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혼자만 4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홈페이지 공지란을 살펴보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2.2 붙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귀찮음을 극복하자

공지를 확인한 후에는 당연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단'에 지원할 때에 지원서에 있는 열 줄이 넘는 '경력'란을 보고 기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스펙을 위한 스펙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분명 한 것은 누구나 처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기회들에만 도전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비교적 경쟁이 낮은 것부터 도전해보세요. 도전을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해도 어차피 떨어지겠지'라고 스스로의 귀찮음을 정당화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3 자체를 즐기자

당연한 말이지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 배회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즐기는 것이 행복하면서도 알찬 대학생활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왔더니 입시보다 더 치열한 스펙 쌓기를 해야 한다고 투덜대지 말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미있는 활동을 해도 그것을 즐기려 하지 않는다면 그저 스펙 쌓기를 위한 '노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점점 향상되는 자기소개서 작성 실력과 포레들과 모여 치열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에 도전하는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경험과 스펙 그리고 사람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3. 필승전략 마인드컨트롤 - 마음속 작업표시줄

3.1 마음의 정리정돈-마음에도 작업표시줄이 필요해

'마음의 정리정돈'은 아무리 즐거운 활동을 하거나 모임을 가지더라도 '해야 할 일'들이 마음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해야 하는 일들이 마음속에 차분하게 담겨있는 상태에서의 여가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여가는 엄청 차이를 야기합니다. 전자의 경우 학점과 대외활동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많은 것을 놓치면서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원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여러 개의 창이 띄워진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컴퓨터 하단의 '작업 표시줄'이 없다면 당신은 아마 원하는 창을 찾는 데에만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하게 되고 컴퓨터의 속도는 저절로 느려질 것이며 때로는 원치 않게 창들을 꺼버리는 실수도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일정한 도식을 가지고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마음속에 작업 표시줄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창은 작업표시줄에 내려놓되, 찾고 싶을 때에 한 번의 클릭으로 그 창을 띄울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3.2 피곤함과 귀찮음에 대한 승리 –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대학에서 여러분은 학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온 이상, 위의 유혹들에 넘어가 주는 것도 내 대학생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혹들에 넘어가면서도 학점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리정돈을 한다면 조금만 노력해도 술과 취미생활이라는 호랑이굴에서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정돈은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동시에 피곤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정돈된 마음에서는 휴식으로부터 일, 과제1로부터 과제2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휴식에서 과제로 전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사이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의 휴식 방식이 술이나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운동과 관련이 있다면 더더욱 피곤함으로 인한 과제 미룸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요. 하지만 휴식이 끝나고 바로 책상에 앉아 해야 할 일에 착수하면 피곤함 때문에 미루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기 전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학 생활 내내 테니스에 푹 빠져 테니스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주 월, 수, 금요일 저녁 세 시간씩을 테니스를 치면서 보냈습니다. 만약 마음속에 해야 할 일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테니스를 치고 집에 돌아와 무엇을 할지 생각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선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곤함을 이기고 해야 할 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도 할 일이 명확할 때에는 바로 다시 책상에 앉아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감일이 닥치기 전에 마음속에 과제나 해야 할 일들이 정돈되어 있다면 짧은 시간에 더 훌륭한 과제를 제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글감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놀면서도 이번 주 과제의 주제가 마음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다

면 그에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찾아왔을 때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하기 싫던 과제도 불현듯 아이디어가 찾아왔을 때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정리해두면 실제로 과제 시간은 줄어들고 과제의 질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주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한 장씩 글을 쓰는 과제가 있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제의 주제를 마음 한 편에 정돈해 두고 완전히 잊지는 않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혼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불현듯 좋은 글감이 떠올라 남는 시간에 빠르게 완성도 높은 과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나 술을 마시고도 숙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무엇에 대해 쓸 지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보니 제출기한을 어기거나 과제 제출을 잊을 일은 없어지고 과제의 질은 높아져 자연스럽게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3 나만의 마음 정리정돈 전략 - 필기 고수의 필기노트는 얇다

위와 같이 해야 할 일을 마음속에 담아 두는 일은 좋지만 다른 해야 할 일들에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 현재의 즐거움을 침범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대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마음의 정리정돈'은 분명히 현재를 즐기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정리정돈'이 익숙해지다 보면 수 많은 데이터들을 명료하고 압축적으로 마음속에 저장하게 됩니다. 마치 필기 고수일수록 필기노트가 단순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내가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과제는 그다지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정리정돈을 하면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다른 일들은 잠시 마음 편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장악함으로써 그 일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조직하고 필요할 때에 하나씩 꺼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압축적인 마음의 정리정돈 방식을 개발해 보세요.